

노화현상을 극복하는 피 썩지 않는 비결

세포수의 감소는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1.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한다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되며 마귀의 마음을 품는 순간 마귀가 되는 것이다. 듣기는 쉽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신천신지(新天地)를 건설하는 새 학문을 선포하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으로부터는 독소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욕심을 부리는 마음은 괴로운 마음이다. 욕심이 많으므로 근심 걱정이 생긴다. 근심 걱정이란 욕심대로 안 되는 일을 욕심대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근심 걱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욕심 중의 욕심이 근심 걱정이며 근심 걱정이 바로 욕심이다.

‘사람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죽는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였다. 이것은 틀림없이 과학적인 사실이다. 의인의 피는 맑고 깨끗하다. 그러나 죄인의 피는 시커멓게 썩어 있다. 욕심부리는 횡수가 많을수록 피는 자꾸 더러워지는 것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수명을 다하면 죽는다. 죽은 세포는 분비물을 통해 빠져나가고, 부족한 만큼의 세포가 새로 조성된다. 새로 조성되는 세포는 피로써 조성되는데 단 썩은 피로는 세포 조성이 안 된다. 썩은 피로는 세포 조성이 안 되므로 썩은 피가 많을수록 몸 전체의 세포는 부족해진다. 그것이 바로 노화현상(老化現象)이다.

썩은 피가 20~30% 늘어 갈수록 세포 조성은 20~30% 감소한다. 그러므로 피부는 주글주글해지고 몸에는 기력이 없어진다. 피부 세포가 부족하므로 피부도 주글주글해지고 심장 세포가 부족하므로 심장도 약해지고 간세포와 폐세포가 부족하므로 간도 약해지고 폐도 약해진다.

왜 늙는지?

늙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피가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늙는 원인을 모르므로 그저 나이를 먹어서 늙고, 늙어서 죽는 것으로 알고 있다. 늙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늙는 것이 아니다. 피가 썩으므로 늙는 것이다. 피를 썩게 하는 원인인 욕심만 제거되면 사람은 늙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 새터데이 리뷰(Saturday Review) 지(誌)의 과학 편집자로 있는 앨버트 로젠펠드 박사는 불과 수년 내에 인간의 수명이 폭발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인체 내에 있는 생명의 제약(制約) 작용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될 때 인간의 수명은 크게 연장되며, 그 첫 단계로서 120세까지는 보편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욕심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욕심은 욕심 자체가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린다. 그러므로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면 욕심이 제거되며 더 이상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려야 부릴 수 없는 비결,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 없는 비결은 나를 의식하지 않는 비결인데 그 비결은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은 ‘나라는’ 개체의식이 없어지게 하고 너와 내가 없는 인류 전체를 하나 되게 한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마음을 태초 이래로 6천 년만에 찾은 분이 계시니, 그분이 진정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구세주 「이긴자」이시다. 진리! 하나 속에 피가 썩지 않는 영생이 있고, 하나 속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천국이 있고, 하나 속에 ‘나라는’ 개체 마귀가 죽고 하나님(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세포수(細胞數)의 감소(減少)

노화현상이란 무엇인지?

현대 의학이 정의하고 있는 의학적 정의를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세어지고 피부에는 주름살이 많아지고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감퇴한다. 이런 현상은 인체의 구성단위인 세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종래에는 세포 하나하나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학설이 유력했으나 현대 의학의 분석 결과 세포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정설(定說)로 되었다. 예를 들어 뼈를 구성하는 뼈세포의 수가 줄어들어 조직(組織)이 엉성해진다든지 뇌 신경 세포 수가 줄어들어 기억력이 감퇴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고도로 사모하며 초초로 바라보면 시원한 생수 은혜(요 4:14, 7:38)가 연결되고 여호와 왕취(창 27:27)를 체험한다

인체의 기관은 피로써 조성되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포 조성은 충실치 못하게 된다. 60세가 넘는 사람의 심장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의 45%, 간장이나 위장, 신장의 무게도 50% 이하라고 한다. 이것은 곧 60대 이상의 세포 조성 비율은 50% 선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은 젊었을 때 비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줄어든다. 심장이나 간, 신장, 위장, 뇌수 등 신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세포가 부족해져서 한 개의 세포가 처리해야 할 처리기능의 부담이 커진다. 이것을 가리켜 신체기능의 효율(效率)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신장(腎臟)의 네프론(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을 만드는 기관)의 수가 감소하면서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작용이 둔화된다.

이같이 세포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 신체의 기능은 떨어지고 질병에 시달리기 쉽고 결국 세포수의 감소는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노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세포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약에 정상적인 세포 수를 유지하여 인간의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꿈의 실현은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피가 맑아져

3. 피가 맑아야 늙지 않는다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 작용을 피로써 설명했듯이 늙음의 원인도 역시 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어린아이의 피는 선홍색으로 맑은 빛을 발한다. 그러나 노인의 피는 혼탁하고 어둡다. 그것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욕심을 부리고 근심·걱정을 하는 횡수가 많아지고 따라서 계속해서 피가 혼탁해져 가는 까닭이다.

근심 걱정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며 욕심이란 곧 ‘나라는’ 존재의식이 일으켜낸 분비물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자아의식(自我意識)이 조종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자.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수명(약 28일)을 다하면 죽는다. (간(肝)세포는 불과 수시간 만에 죽고 또 새로 만들어지며 뼈세포는 1~8년 동안에 걸쳐서 죽고 다시 재조성된다. 수명을 다하여 죽은 세포는 배설물이나 분비물, 때와 땀 등으로 밖으로 배출된다.

죽은 세포는 곧 피에 의해 재조성되는데 썩은 피로서는 새 세포를 조성하지 못한다. 새 세포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썩은 피속에서는 병균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썩은 피는 병균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즉 썩은 피가 40%, 50% 늘어 갈수록 새로 조성되는 세포는 40%, 50%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근육, 뼈, 신경조직과 오장 육부가 모두 다 충실하게 재조성되지 못하게 되어 기력이 떨어지며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피가 맑아야 오래 산다라든가 ‘마음이 깨끗해야 오래 산다’라는 속설(俗說)이 사실은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다.

정결한 피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 핏속에 병균이 침투해 들어와도 결코 병에 걸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의학계에서는 저항력이 강하다고 한다. 또한 썩지 않은 건강한 피로 이루어져 사람은 체내의 모든 세포가 완벽하게 재조성되므로 가장 젊은 청년기의 몸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늙는 것이 아니요, 피가 썩어서 사람이 늙듯이 병든 사람이 병균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요 썩은 피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므로 세상의 의학은 병균을 죽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병에 걸리는 근본 뿌리가 되는 원인은 썩은 피에 있으므로 썩은 피가 제거되려면 그 마음이 변해야 한다. 마음이 변화될 때 피가 변하는 가운데 체질 자체가 바뀌어 병이 낫는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피가 맑아져 늙지 않는다. 이렇듯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4. 피를 썩게 하는 ‘나라는’ 자의식(自意識)의 정체

『유교: 격암유록』

自心天主 모른故로 不免審判 地獄이라 자심천주 고 불면심판 지옥

〈해설〉 내 마음(양심)이 하나님의 주인인 줄 모르는 고로 심판을 면할 수 없어 지옥으로 가느니라. 즉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양심인데 후천적으로 침범한 나라는 자의식(자존심)에 의해 살아가면 마지막엔 심판을 면할 수 없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다.

自己自欺不覺(자기자기불각)하야 人命殺害(인명살해)네로구나 〈해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기반에 속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수명을 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살이로구나!

『불교: 미륵하생경』

先天眞寶 如金如玉 後天假物 如砂如石 後天假物埋沒 先天眞寶 선천진보 여금여옥 후천가물 여사여석 후천가물매몰 선천진보

〈해설〉 선천의 진짜 보배는 금과 같고 옥과 같은 선량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후천의 가짜 물건은 모래와 같고 돌과 같은 나라는 자의식인데 선천의 진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량한 마음인 양심을 후천의 가짜 물건인 마귀가 침범한 나라는 자의식(자존심)이 양심인 하나님의 마음을 묶어놓고 욕심에 의해 살고 있다.

人心爲一身之主 乃成聖 成賢作佛作仙之根本 인심위 일신지주 내성성 성현작불작선지근본

〈해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선량한 양심이 한 몸의 주인의 모습인데, 그 선량한 마음인 양심은 사람을 신성한 사람이나 여진 사람으로 이룰 수 있게 하고 또 부처님이나 신선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성경 예베소서 4장』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새사람을 입어라 〈해설〉 마귀가 주는 마음(자의식)을 따라 살다가 끝내는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새사람을 입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하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일깨운 말씀이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5695-897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